

##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조직령도하신 지식인들을 조국해방전쟁의 승리와 인민경제복구사업에 적극 이바지하도록 하기 위한 투쟁

김 정 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력사상 류례없는 준엄한 조국해방전쟁의 불길속에서도 우리의 지식인들을 굳게 믿으시고 그들이 전쟁의 승리와 인민경제의 복구사업에 적극 이바지하도록 현명하게 이끄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주체39(1950)년 6월 26일 당중앙위원회 정치위원회에서 하신 결론 《모든 력량을 전쟁승리에로 총동원할데 대하여》를 비롯한 여러 로작들과 교시들에서 지식인들이 조국해방전쟁의 승리와 인민경제의 복구사업에 적극 이바지하도록 할데 대한 방침을 제시하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과학자, 예술인들은 모든 사람들이 조국과 인민을 위하여 목숨바쳐 싸울수 있도록 그들의 사상의식수준을 높여주며 자기의 지식과 재능을 다 바쳐 조국해방전쟁의 승리와 인민경제의 복구사업에 적극 이바지하여야 하겠습니다.》(《김일성전집》 제13권 9페이지)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지식인들이 조국해방전쟁의 승리와 인민경제복구사업에 적극 이바지하도록 할데 대한 방침을 제시하시고 그 실현을 위한 투쟁을 조직령도하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무엇보다먼저 지식인들이 모든 사람들을 조국과 인민을 위하여 목숨바쳐 싸울수 있도록 사상의식을 높여주기 위한 사업을 힘있게 벌리도록 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문학예술부문과 출판보도부문 지식인들이 우리 인민군군인들과 인민들을 전쟁승리에로 불러일으키도록 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주체39(1950)년 8월 작가, 예술인들을 부르시여 전체 조선인민을 전쟁승리를 위한 영웅적투쟁으로 불러일으키는데 이바지하는 문학예술작품들을 창작할데 대한 강령적과업을 제시하시고 우리 당의 문예방침을 관철하기 위한 대책들을 취하여주시였다.

위대한 수령님의 강령적교시를 높이 받들고 작가, 예술인들은 인민군군인들과 후방인민들속에 깊이 들어가 그들의 영웅적투쟁과 강의한 모습을 진실하고 생동하게 묘사한 훌륭한 작품들을 수많은 창작하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제시하신 방침에 따라 작가들은 우리 인민의 숭고한 애국심과 인민군용사들의 영웅성과 완강성, 우리 인민과 인민군대를 현명하게 이끄시여 전쟁의 최후승리를 마련해나가는 수령님을 백전백승의 강철의 령장으로 우리러 노래하였다. 작가들은 서정시 《크나큰 그 이름 불러》, 《사랑의 손길》, 《생산의 불길로》를 비롯하여 위대한 수령님을 끝없이 흠모하고 따르며 충정다하는 우리 인민과 인민군전투원들의 고상한 정신세계와 투쟁열의를 진실하게 표현한 우수한 시작품들을 많이 창작하여 인민군군인들과 인민들을 전쟁승리에로 불러일으켰다.

위대한 수령님의 현명한 령도밑에 전시체제로 개편된 우리 당 출판보도물은 전쟁 첫 시기부터 우리 군대의 전투성과를 고무추동하는 보도선전에 집중하였다. 당보에서는 《일체 력량을 전선으로!》, 《전쟁승리를 위하여 후방의 모든 력량을 바치자》 등 힘있고 전투적인 사설들을 련속 내보냈으며 《민주조선》은 《전체 인민의 총력량을 집중하여 원수들을 격멸소탕하자》, 《청년들이여 모두다 전선으로!》를 비롯한 사설을 내보내어 전체 군대와 인민을 전쟁승리를 위한 성스러운 싸움에 쫓아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서울이 해방되자 방송일군들을 내보내야겠다고 하시면서 서울 방송국을 장악하고 방송으로 우리 공화국정부의 목소리를 내보내게 되면 조선은 물론 전세계가 조선인민의 승리를 알게 될것이며 그것은 싸우는 우리 인민들을 크게 고무하고 적들의 사기를 여지없이 꺾어버리게 될것이라고 교시하시였다.

중앙방송위원회는 서울이 해방되자 위대한 수령님의 교시대로 지체없이 방송일군들을 서울에 내보내어 서울방송국을 장악하고 서울해방과 관련한 중대방송을 시작하였다. 그후 서울방송국은 평양에서 내보내는 중앙방송중계를 위주로 하면서 해방지역인민들뿐 아니라 적구인민들에게도 우리의 정의의 목소리를 알려주는 사업을 전격적으로 진행하였다.

그리하여 전체 군대와 인민들은 전쟁승리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자기의 청춘도 생명이 다 바쳐 싸웠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으로 지식인들이 자기의 지식과 재능을 다 바쳐 조국해방전쟁승리와 인민경제복구사업에 적극 이바지하도록 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군수공업부문에서 높은 생산적양을 일으키는 한편 지식인들이 이 부문 과학연구사업과 기술발전사업을 활발히 전개하도록 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주체41(1952)년 5월에 소집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군사위원회에서 전투기술기재연구사업 및 군수품생산을 강화하기 위한 과업을 제시하시였으며 주체41(1952)년 6월에는 병기공업에 대한 연구사업을 하여야 한다고 하시면서 세계에 제국주의가 존재하고있는 한 우리는 조국과 민족을 보위하기 위하여 국방력을 계속 강화하여야 한다고 교시하였다.

과학원창립이후 새로 조직된 공학연구소에서도 군수품생산과 관련한 과학연구과제들을 설정하고 연구사업이 진행되였다.

야금공업부문 기술자들은 탄환강, 특수강 등 철강재생산을 늘이는 방향에서 생산기술공정을 개편하였으며 금속공장들과 모든 공장의 주물직장들을 군수품을 부어내는 생산공정으로 전환시키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지식인들이 전선과 후방을 강화하는데서 나서는 과학기술문제들을 성과적으로 해결해나가도록 하시였다.

전쟁 첫 시기 전문연구기관들에서는 연구력량을 재편성하고 연구사업방향을 전쟁승리에 철저히 복종시키는데로 돌리는것을 비롯하여 과학연구의 모든 부문을 전시체제로 개편하였으며 주어진 조건과 가능성을 다 찾아내어 전선에서 적을 족치는 심정으로 연구사업을 벌리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전쟁시기 지식인들이 기계제작공업을 복구정비하고 새로운 기계제작공업기지를 창설하는데 지혜와 재능을 다 바치도록 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주체40(1951)년 4월을 비롯하여 여러차례에 걸쳐 우리의 힘으

로 기계를 만들어내겠다는 확고한 결심을 가지고 기계공장건설을 내밀어야 한다고 교시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의 원대한 기계공업기지창설구상에 따라 주체40(1951)년에 공작기계공장건설장에 수많은 건설자들과 일군들, 유능한 기술자, 전문가들이 파견되였다. 그리하여 주체40(1951)년부터 희천지구를 비롯한 각 지방에 현대적인 대규모기계공장들이 창설되기 시작하였다.

주체42(1953)년도 기계제작 및 금속가공공업의 생산액은 전쟁전인 주체38(1949)년에 비하여 124%로 높아졌으며 공업총생산액에서 기계제작 및 금속가공공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주체38(1949)년에 8.1%이었던것이 주체42(1953)년에는 15.3%로 급속히 높아졌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전후복구건설을 위한 건재생산기지를 꾸리기 위한 사업을 힘있게 추진하도록 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전후복구건설에서 건재공업이 차지하게 될 위치와 역할의 중요성을 깊이 헤아리시고 주체40(1951)년에 벌써 화학건재공업성을 새로 내오고 《화학건재공업성에 관한 규정》을 채택하도록 하시였으며 승호리세멘트공장을 비롯한 전국의 중요세멘트공장들을 복구확장하여 생산을 시작하며 각 도, 시, 군들에 벽돌공장과 건재생산기지를 꾸리기 위한 구체적인 대책을 세워주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제시하신 강령적과업을 높이 받들고 과학자, 기술자들은 전후에 공장, 기업소들과 도시들을 건설하는데서 수없이 많이 요구될 세멘트, 벽돌 및 그밖의 건설자재들을 생산보장하기 위한 연구사업을 벌려나갔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전쟁시기에 공업의 파괴정형에 대한 조사와 그의 복구정비를 위한 연구, 새로운 공업부문을 창설하기 위한 전망적인 과학연구사업들을 힘있게 진행하도록 하시였다.

공업부문의 과학자, 기술자들은 주체42(1953)년 하반기도에 들어서면서부터 전쟁의 최후승리를 확신하고 전후 공업의 복구건설에 이바지할 여러가지 연구과제들을 설정하고 과학연구사업을 힘있게 벌려나갔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건설부문 지식인들이 도시복구건설을 위한 투쟁에 떨쳐나서도록 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주체40(1951)년 1월 도시설계일군들에게 전후복구건설을 위한 준비를 지금부터 잘해야 전쟁이 끝나면 인차 복구건설에 착수할수 있다고 하시면서 우리나라 현실과 민족적특성에 맞게, 우리 나라의 고유한 민족적형식을 살리면서도 오늘 우리 인민의 정신도덕적풍모와 생활감정에 맞게 민주수도 평양을 화려하고 아름답게 웅장하고 현대적으로 복구건설할데 대한 방향과 과업을 제시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의 강령적교시에 따라 전후 평양시복구건설총계획도가 작성된데 뒤이어 주체40(1951)년 10월 25일에 채택된 내각결정에 의하여 함흥, 청진, 원산, 남포, 사리원, 신의주 등 각 도 소재지들을 비롯한 도시복구를 위한 현지조사와 총계획작성사업이 활발히 진행되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가렬한 전쟁시기에 나라의 자원부원을 조사연구할데 대한 구상을 펼치시고 그 실현을 위한 투쟁으로 지식인들을 불러일으키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주체41(1952)년 3월 27일 내각소회의에서 당면하여 전쟁의 승

리를 보장하기 위해서도 그렇고 전후에 파괴된 인민경제를 빨리 복구하기 위해서도 그렇고 지하자원을 적극 개발하여 효과적으로 리용해야 한다고 하시면서 앞으로 경제가 발전하는데 따라 급속히 늘어나는 원료와 연료의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하여서는 지하자원개발사업을 선행시켜야 하며 그러자면 지질탐사사업을 강화해야 한다고 교시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이와 함께 북부고산지대에 대한 조사사업과 서해안간석지에 대한 조사사업을 활발히 벌리도록 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주체41(1952)년 7월 6일 김일성종합대학 부총장을 부르시여 고산지대자원조사사업의 필요성과 사업방향에 대하여 제시하시였다. 그리고 주체41(1952)년 7월 10일에는 농림상에게 전화로 고산지대자원조사단에 농산, 축산, 산림, 기상, 토양, 동식물 등 여러부문의 전문일군들을 망라시키고 조사단성원들의 사업과 생활을 잘 돌봐줄데 대하여 교시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의 교시에 따라 북부고산지대개발을 위한 조사단이 김일성종합대학 교원, 학생들과 농산 및 축산부문을 비롯한 여러 부문의 기술일군들을 망라시켜 조직되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조사단이 멀고 험한 길을 떠나는데 자동차도 새것을 주고 다이아도 예비로 더 가지고 가도록 하며 탐사용기자재와 부식물은 물론 내의, 신발, 식량 그 밖의 여러가지 생활필수품들을 충분히 마련해주도록 하시였다.

조사단성원들은 북부고산지대에 대한 조사계획을 세우고 주체41(1952)년 가을부터 불과 한달 남짓한 기간에 장진호반, 부전고원에 이르기까지 넓은 지역을 탐사하여 5만 3 000여정보의 목장후보지와 9 000여정보의 농장후보지를 얻어냈으며 그 일대의 자연지리적조건과 경제발전전망에 대한 실태자료를 조사장악하였다. 그리고 수천정보의 습지대를 개발하고 풀밭을 조성하여 비옥한 옥토로, 방목지로 전변시킬수 있는 예비를 찾아내였다.

조사결과에 근거하여 북부고산지대에 국영농목장을 창설하기 위한 사업이 적극 추진되어 북부고산지대에는 1만정보이상의 면적을 가진 농장이 건설되게 되었으며 뒤이어 포태, 황수원, 양평, 장진농목장이 일떠서게 되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서해안간석지에 대한 조사사업을 진행하도록 이끌어주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주체41(1952)년 4월 13일 김일성종합대학 교직원, 학생들앞에서 하신 연설과 과학자대회에서 하신 연설에서 제시하신 과업을 높이 받들고 주체42(1953)년도에 들어서면서 서해안간석지에 대한 조사사업이 진행되였다. 김일성종합대학 교원, 학생들과 이 부문의 과학자, 기술자들로 간석지조사단이 무어졌다. 간석지조사단성원들은 3차에 걸치는 조사사업으로 개간에 가능한 간석지를 평안북도해안에서 15만 2 000여정보, 황해도해안에서 7만 7 000여정보를 찾아내게 되었다.

이처럼 위대한 수령님께서 지식인들이 조국해방전쟁의 승리와 인민경제복구사업에 적극 이바지하도록 하기 위한 투쟁을 현명하게 조직령도하심으로써 우리의 지식인들은 전쟁의 준엄한 시련속에서도 조국의 룡성번영을 위한 사업에 모든것을 다 바칠수 있었다.